

## 연예뉴스 스테이션

리쌍, 건물 세입자 반발로 퇴거명령 강제집행 중지  
합합듀오 리쌍이 서울 신사동 자신들의 건물에 세 들어 영업하던 상인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아내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세입자의 거센 반발로 마찰이 빚어졌다. 리쌍은 건물에서 곱창 집을 운영하는 A씨 점포에 대해 철거용역 100여명을 투입해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A씨 측 임차상인들의 모임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회원 70여명은 용역 측 진입을 막아섰고, 3시간가량 대치했다. 결국 리쌍 측과 집합권이 강제집행 중지를 선언해 대치 상황은 일단락됐다. 앞서 법원은 A씨에 퇴거명령을 내렸고 1차 계고장 시한은 4월27일, 2차 계고장 시한은 5월30일로 끝났다. 하지만 A씨 측은 법원 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다.

여자친구, 첫 정규앨범 'LOL' 선주문 6만장 돌파  
11일 발매되는 걸그룹 여자친구의 첫 정규앨범 'LOL'가 선주문 6만장을 기록했다. 여자친구 소속사 쏘스뮤직은 7일 "'LOL'의 선주문 수량을 집계한 결과 6만 장을 조금 넘어섰다"고 밝혔다. 작년 1월 데뷔해 활동 2년차에 접어든 걸그룹이 선주문 물량만으로 6만장을 돌파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더욱이 음반의 경우 팬덤을 확인하는 지표가 되는 만큼 여자친구는 그간의 활동을 통해 한층 탄탄해진 팬덤을 구축했으며, 이런 팬덤의 힘이 두드러지면서 음반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폭행시비' 김용준, CCTV 공개...정당방위 논란  
그룹 SG워너비 김용준이 5월 술집에서 옆자리 손님의 싸움에 휘말려 폭행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CCTV 영상이 7일 공개돼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다. 영상에서 김용준은 옆자리 사람들이 몸싸움 도중 자신에게 넘어지자 손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했고, 김용준의 지인은 이를 말리는 장면이 담겼다. 앞서 김용준 측은 "상대방이 위협을 해서 정당방위를 했다"고 해명만 바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상대방의 위협이 없었는데도 김용준이 먼저 때리려했다'며 김용준의 거짓해명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김용준 측은 "공개된 영상을 보면 당시 상황이 충분히 위협적이다. 김용준은 정당방위 차원의 행동을 했으며, 거짓 해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신혜선·은유, '2016 신스틸러 페스티벌' 신인상 배우 신혜선과 그룹 사이니 은유가 '2016 신스틸러 페스티벌' 남녀신인상을 수상한다. 신스틸러페스티벌 조직위원회는 19일 서울 장충동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제2회 '2016신스틸러 페스티벌' 공로상·감독상·남녀 신인상 수상자 명단을 7일 공개했다. 공로상은 tvN 금토드라마 '디어마이프렌즈' 김영옥이, 감독상은 영화 '명량'의 김한민 감독이 받는다. 올해 신설된 남녀 신인 신스틸러상에는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사이니 은유와 KBS 2TV 주말드라마 '아이가 다섯'과 영화 '검사의전'에서 활약한 신혜선이 선정됐다.

신혜성, 라이브웍스컴퍼니와 3번째 재계약  
신혜성이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와 세 번째 재계약을 맺었다. 2009년 라이브웍스컴퍼니와 전속계약을 신혜성은 2013년 재계약한 뒤 이번에 다시 재계약을 맺었다. 특히 라이브웍스컴퍼니 이장언 대표와는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해 눈길을 끈다. 이장언 대표는 신화가 SM엔터테인먼트를 나와 처음 몸담았던 쿤터터테인먼트 시절부터 신혜성의 첫 솔로앨범을 비롯해 국내외 음반 및 공연을 총괄해왔다. 신혜성은 이 같이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이장언 대표와의 신뢰와 의리로 계약금 없이 또 한번 재계약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공연 랭킹               |                    |            |
|---------------------|--------------------|------------|
| 7월 1일~7월 7일 자료:인터파크 |                    | 1위 공연 정보보기 |
| 순위                  | 공연명                | 주연         |
| 1                   | VIXX 콘서트           | 빅스         |
| 2                   | 인피니트 콘서트           | 인피니트       |
| 3                   |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 홍광호        |
| 4                   | 뮤지컬 <모차르트>         | 이지훈        |
| 5                   | JYP NATION CONCERT | 박진영        |
| 6                   | 뮤지컬 <그날들>          | 유준상        |
| 7                   |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 이종혁        |
| 8                   | 뮤지컬 <스위니토트>        | 조승우        |
| 9                   | 뮤지컬 <울속업>          | 휘성         |
| 10                  | 뮤지컬 <위키드>          | 차지연        |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최지우



김혜수



고현정



전도연



신민아

## 여우들 마음 훔친 tvN 드라마 ‘스토리의 힘’

톱 여배우들의 과감한 선택 왜?

최지우·김혜수·고현정·전도연… 신민아도 9월 ‘내일 그대와’ 출연  
참신한 소재·탄탄한 대본에 매료

톱스타급 여배우들의 ‘과감한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신민아다. 신민아도 최지우, 김혜수, 고현정 그리고 전도연에 이어 케이블채널 tvN으로 향한다. 9월 방송 예정인 판타

지 로맨스 드라마 ‘내일 그대와’가 그 무대다. 시간여행자와 그의 발발한 아내가 벌이는 이야기다. 신민아는 신중한 검토 끝에 최근 출연을 확정했다. 단순한 가벼움보다는 촘촘한 스토리 구성이 신민아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신민아는 이미 정상의 자리에서 높은 몸값을 자랑하며 좀처럼 움직이지 않던 톱스타급 여배우들의 잇단 행보를 알려준다. 이들은 케이블채널 tvN으로 발길을 돌리며 방송가에 변화

의 바람을 몰고 오고 있다.

사실 최지우가 가장 먼저 tvN행을 선택했을 때만 해도 크게 와 닿지 않았지만, 작품 선택에 까다롭기로 유명한 ‘여배우 대표 3인방’인 김혜수, 고현정, 전도연이 움직이자 방송가와 시청자는 신선한 충격의 시선으로 이를 바라봤다. 충무로에서 러브콜을 가장 많이 받는 전도연이 11년 만에 드라마로 복귀하며 비 지상파 방송을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화제다. 전도연이 주연한 ‘굿와이프’ 제작진 역

시 “설마 전도연이 출연한다고 할 줄 몰랐다. 당연히 거절할 거라 생각했다”며 놀랐을 정도다.

전도연은 8일 방송하는 ‘굿와이프’를 통해 자신의 선택에 대한 시청자의 평가를 받게 된다. 동명의 인기 미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작품에서 전업주부로 살아오던 전도연은 정치 스캔들로 수감된 남편 대신 변호사로 다시 돌아와 사건을 해결한다. 그는 “캐릭터보다는 스토리에 끌렸다”고 했다. 고현정이나 김혜수도 마찬가지로

다. 지상파 방송 드라마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참신함, 독특하면서 탄탄한 대본 등 완성도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고현정은 노년의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 “신선하다고” 판단해 ‘디어 마이 프렌즈’에 출연했다. 주연 자리에서 한발짝 뒤에서 있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시그널’의 김혜수도 “대본을 보고 안 할 이유가 없어서” 현재와 20년 전 과거를 가까이 넘나들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 터보 재가동

8~9월 중 새 음반 발표 예정

터보 엔진이 다시 가동한다. 작년 데뷔 20주년을 맞아 15년 만에 재결성했던 그룹 터보(사진)가 다시 ‘질주’를 위해 음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발표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8~9월 사이 새 음반을 내놓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음반 형태는 미니앨범이 유력하지만 상황에 따라 싱글로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김종국은 중국 활동과 국내 방송 출연으로 바쁜 와중에서도 터보의 새 음반 작업을 진두지휘하며 깊은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음반의 콘셉트부터 곡 의뢰 등 작업 전반에 참여하며 완성도 높이에 힘을 쏟고 있다.

터보의 이번 음반은 의미가 있다. 지난해 “터보 활동을 1회성으로 끝내지 않는다. 앞으로도 활동하며 유니크한 팀이 되고 싶다”고 했던 김종국의 약속을 지키게 됐기 때문이다.

작년 김종국과 김정남, 마이키가 터보로 다시 뭉친 것을 두고 1990년대 가수들의 재결성 열풍의 한 가지로 보는 시선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새 음반으로 ‘1회성 이벤트’가 아니란 것을 증명하게 됐다.

작년 12월 20주년 기념앨범 ‘어게인’을 냈던 터보는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투어와 해외공연, 방송 출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 꾸준히 음반을 내고 활동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 ‘함부로 애뜻하게’ 중국판 OST 따로 있다?

중국어 현지가수 사론티 곡 공개  
제작사 “국내 발매 OST가 공식”

KBS 2TV 수목드라마 ‘함부로 애뜻하게’ 중국어 OST가 별도로 공개돼 궁금증을 사고 있다. 6일 중국에서는 ‘함부로 애뜻하게’의 첫 방송에 맞춰 현지가수 사론티가 부른 OST ‘비에슈오’(別說·말할 필요도 없이)가 공개됐다. 사론티는 이날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가창을 맡은 감사의 소감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곡은 드라마 공식 OST 사용 여부에 대해 제작사 삼화네트웍

스가 관련 사안을 정확하게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음원으로 나온 것이어서 논란 가능성이 일고 있다. 제작사는 이 곡이 중국에서 OST로 공개된 사실을 6일 밤 인지하고 7일 현재 사태 파악 중이다. 제작사 관계자는 이날 “OST와 관련해 국내와 중국의 제작·유통사가 별도로 움직인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중국에서도 국내에서 발표하는 OST가 공식이다”고 말했다.

‘함부로 애뜻하게’에 앞서 중국과 동시 방송의 첫 사례인 ‘태양의 후예’는 국내에서 출시하는 OST 그대로 현지 시청자에 소개됐다. 중국어 대

신 거미의 영어 버전 ‘유 아 마이 예브리싱’이 공개된 바 있다.

이번 OST는 국내 제작사와 중국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벌어진 일이지만 역설적으로 현지 시청자와 더욱 밀접해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렌이일리엔’(任意 依戀)이라는 제목으로 유료 회원에 한해 공개 중인 ‘함부로 애뜻하게’의 1회는 7일 오후 3시 현재까지 115만 8488건의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 국내에서는 청춘스타 김우빈과 수지의 조합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6일 첫회가 12.5%(닐슨코리아)의 시청률로 동시간대 1위에 오르며 순조롭게 시작했다.

백슬기 기자 bsm@donga.com

## ‘슈퍼맨’ 합류 1주년 떡 돌린 대박이 아빠

(이동국)

축구선수 이동국(전북 현대)이 설아·수아 쌍둥이 자매 그리고 ‘대박이’ 시안군과 함께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신관을 찾았다. KBS 2TV

예능프로그램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슈퍼맨이 돌아왔다)에 합류한 지 1년을 맞아 이를 자축하는 작은 선물을 돌리기 위해서였다. 이날 이동국은 사전예고 없이 KBS 신관 예능국을 찾아와 ‘슈퍼맨이 돌아왔다’ 출연 1주년을 기념하는 떡을 돌렸다. 이동국과 아이들은 ‘슈퍼

맨이 돌아왔다’ 제작진 외에도 편집실 등을 돌며 감사인사를 전하고 자리를 떠났다. 이동국은 “이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으면 한다”며 겸손해 했다. 하지만 KBS 1TV ‘별난가족’에 출연 중인 연기자 김진우가 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뒤늦게 알려졌다.

다. 프로그램의 인기를 책임지는 생후 20개월 ‘대박이’ 시안군은 이날 KBS 신관 안에서 시선을 모았다. 김진우는 “평소 너무나 즐겨보던 프로! 이렇게 만나다 나중에 대박이랑 데이트 하고 싶다. 예능 출연해야 하나요?”라며 애정을 드러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한 제작진

게지는 “우리가 오히려 떡을 드렸어야 했는데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국은 6월26일 광주FC와 원정경기에서 한스트링 부상을 당한 이후 현재 인천의 한 재활센터에서 휴식을 취하며 ‘슈퍼맨이 돌아왔다’ 촬영에 임하고 있다.

이경후 기자 thiscase@donga.com